

“광주세계양궁선수권 태극마크를 쏘라”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오늘 계급장 떼고 슛오프

최미선·오예진·남수현·이은경·수성·안산·이승윤·탈환·광주·전남 공사 23명 '1차 관문 도전'...남녀 각 64명 가려

“다시 시작이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대한양궁협회는 27-28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5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개최한다.

1차 선발전은 국내대회 개인전 1-3위 입상자, 기준기록(남자 1천334점, 여자 1천338점)을 통과한 남자 102명, 여자 102명이 출전한다. 중학교 3학년 선수 가운데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자도 출전 기회를 갖는다.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 김우진(정주시청), 임시현(한체대)과 남녀 각 3연패와 10연패의 주역인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 전현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도 계급장을 떼고 원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께 한다.

26-27일 치러지는 1차 선발전에서는 8차례 70m(36발) 기록경기(남·녀 180초 동시발사)를 통해 남녀 각각 64명을 선발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남자 6명, 여자 17명이 태극마크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현 국가대표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 남수현·이은경(순천시청)은 태극마크 수성에 나선다.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과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은 태극마크 탈환과 함께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티켓에 도전장을 던졌다.

‘광주시청 4인방’ 김수린, 최민선, 이가영, 김재윤은 광주 양궁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올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전국 대표 김수린은 지난 7월 끝난 올림



지난 3월 1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단 최미선, 오예진, 남수현, 이은경(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픽제페기념 제4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여기에 김이안(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이수연(광주여대), 유시현(순천시청), 탁해운·서보은(순천대), 이동민·최민준(남구청), 이원주·진효성(조선대)도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광주·전남 고교 공사 박주혁(광주체고), 이다영·남지현(광주체고), 조민·이은(순천여고)은 ‘스타 탄생’을 꿈꾼다.

2차 선발전은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청주김수녕양궁장에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이 역배점 점수를 안고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펼쳐 최종 남녀 각 20명을 가린다. /박희중기자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출정식에서 한국시리즈 엠블럼이 공개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S 1차전 내달 21일 플레이블

1-2차전, 5-7차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열려



통산 12번째 우승을 향한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다음달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

KBO는 26일 “7전 4승제의 ‘2024 프로 야구 한국시리즈’가 오는 10월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7전 4승제 한국시리즈는 1-2차전과 5-7차전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개최한다.

이는 정규리그 우승팀에 홈 어드밴티지를 주고자 한국시리즈 홈 편성 방식을 2-3-2에서 2-2-3으로 바꾼 2020년 1월 KBO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21일 플레이오프(PO) 승자와 홈 구장에서 1차전을 치른 후 22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갖는다.

이후 장소는 PO 승리팀 홈 구장으로 옮겨 3-4차전을 치르고, 이때까지 우승팀이 가려지지 않으면 5차전부터 KIA 홈 구장에서 결판을 낸다.

한편, KBO 포스트시즌은 오는 10월 2일 와일드카드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주홍철기자

포스트시즌 압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티켓 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압표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문체부는 26일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압표 의심 사례를 압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매 사이트 등에 개정 법률 시행과 압표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것이다.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은 스포츠 압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열린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윤(왼쪽에서 네번째)과 김수린(왼쪽에서 세번째)이 시상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이승윤·김수린, 혼성단체전 ‘金 합작’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 광주은행 여자단체전 동메달

이승윤(남구청)과 김수린(광주시청)이 제56회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승윤-김수린은 26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혼성단체전에서 결승에서 울산(황석민-이은지)을 세트 스코어 5대4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승윤과 김수린은 16강에서 인천

(한우탁-김서영)을 6대0, 8강에서 경기(김예찬-손서빈)를 5대3, 4강에서 경북(김제덕-이혜민)을 5대3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은행텐텐양궁단은 여자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최미선·안산·김이안으로 팀을 이룬 광주은행은 16강에서 순천시청(5대3), 8강에서 현대백화점(5대3)을 꺾고 준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LH에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혼성 단체전은 소속 시도별 예선 라운드 기록 상위 남녀 1위가 팀을 꾸려 시도대항전으로 치러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 주관의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종합선수권대회는 올해 치러진 총 9번의 대회를 통해 선발된 최고 수준의 리커브 남녀 각 102인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박희중기자

수창초, 추계 초등야구 우승

대성초와 박찬호기 전국초등야구대회 광주대표 출전

수창초가 2024 추계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26일 광산구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서석초를 18대2로 꺾고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광주 지역 7개 팀(대성초, 서림초, 서석초, 송정동초, 수창초, 학강초, 화정초)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수창초는 첫 경기에서 송정동초를 8대4로 꺾고 첫 승을 신고한 후 이어 대성초를 13-6(4회 풀드승)으로 제압, 결승에 진출했다. /박희중기자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수창초 임재하가 선정됐고, 수창초 김서우와 서석초 김병현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우승팀 수창초와 대성초는 오는 11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22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2024 광주시장배 중학교 야구 동초를 8대4로 꺾고 첫 승을 신고한 후 이어 대성초를 13-6(4회 풀드승)으로 제압, 결승에 진출했다. /박희중기자

김천 잡고 잔류 굳힌다

광주FC, ACLE 병행...체력 극복 승부 관건



광주FC가 김천 상무를 상대로 잔류 안정권 진입을 위한 승점 쌓기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지난 제주전 패배로 파이널A 진출이 무산된 광주는 이번 김천 원정 승리로 잔류 안정권인 7위를 수성하고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린다는 각오다.

최근 광주는 ACLE와 리그를 동시에 소화하는 힘든 일정을 소화 중이다.

다음달 1일 가와사키 원정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광주로서는 김천과의 경기에서 체력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천전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골 결정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광주는 문전 앞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게 패한 경기가 많았다. 지난 제주전에서도 결정적 기회를 놓치며 수세에 몰렸던 바 있다.

다행히 이번 김천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제주전에 결장했던 이진희가 정상 출전하고 최경록 역시 대기 중이다. 가브리엘, 이희균, 아사니도 득점포 가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팀 득점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경미한 부상에서 회복한 허을, 후반기에 돌아와 주전 풀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민기, 거의 모든 경기에서 출전하며 강철 체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진호의 활약을 통해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6월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광주FC 가브리엘이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한편, 김천은 현재, 울산, 강원과 함께 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 시즌 광주와의 대결에선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광주는 김천전 이후 ACLE 2차전을 위해 일본 가와사키로 원정을 떠난다. 이어지는 주말 서울과의 홈경기까지

광주로서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중요한 주를 맞이하게 된다.

리그 잔류 경쟁과 ACLE 예선 라운드 통과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광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중기자

장애를 넘어 하나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광주·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열전

광주·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6일부터 10월5일까지 광주시장에인국민체육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6일 사전 경기인 뉴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총 26개 종목(뉴스포츠대회 12종목, 화합경기 4종목, 종목별 어울림대회 1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27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5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5개 자치구 대항 화합경기가 펼쳐지며, 어울림 화합경기를 통해 교류의 장을 펼친다.

2024 전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26일 완도군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예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치유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22개 시·군에서 2천200여 명이 참여해 신규종목으로 추가된 파크골프를 비롯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론볼 등 13개 종목(정식 10, 화합 3)에서 열린 경기를 벌인다.

한편, 대회 기간 동안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는 보치아와 슨린, 디스크골프 등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함께 완도의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희중기자